

강진군, 마랑 횡집거리 조성 간담회 개최

사회단체장·횡집 상인회 등 간담회 갖고 다양한 의견 나눠 이승옥 군수 "민관 협력해 마랑항 명성 다시 되찾기를 바라"

강진군은 지난 2일 마랑 사회단체장, 횡집 상인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마랑 횡집거리 조성사업 추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랑 횡집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1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7억2천만 원을 투입해 거리 상징 조형물, 포토존 등 거리 인프라 구축과 횡집 개선 컨설팅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接客 서비스 개선 교육 등을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날 간담회는 거리 조성 디자인 설계 수행

업체가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 전 마랑면 사회단체장 및 횡집 상인회 등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과정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옥 군수는 "관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식당 영업주분들의 음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횡집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민과 관이 협력해 예전 사람들로 붐비던 마랑항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명영 마랑횡집 상인회장



은 "마랑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횡집 거리 조성사업 유치에 노력해 주신 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기회로 삼아 마랑면을 향

아오고 싶은 맛집 관광지로 만들자"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전통 발효차 청태전 교육생 모집

25일까지 35명...4월부터 10회 과정

장흥군은 이달 25일까지 전통 발효차 청태전 교육생을 35명 내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4월부터 10회 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의 역사와 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청태전 산업의 인적 자원과 육성, 전통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태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차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통 발효차 청태전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의 차문화 및 장흥의 전통 차문화를 비롯한 차전반에 대한 이론과 장흥청태전 제다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청태전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이어가고, 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조성은 스피치 대표, 진도군에 아리랑 담배 등 희귀물품 13점 기증



1960년대에 판매된 아리랑 담배 등 진도군 아리랑 체험관에 전시 예정

진도군은 최근 조성은 스피치 대표가 아리랑과 관련된 희귀 자료 등을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고군면 향동리 출신 조성은(조성은 스피치 대표)씨는 아리랑 담배 등 희귀 자료 13점을 진도군 아리랑체험관 전시를 위해 기증했다.

기증 물품은 조성은씨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1964년 발매된 포갑지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포갑지, 담배, 케이스로 총 6종 13점이다.

이는 1960~80년대 아리랑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로 기증된 물품들은 진도군 아리랑체험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현재 아리랑체험관에 전시된 아리랑 담배는 1960년대 발매된 포갑지 3점이다.

한국 최초의 필터담배인 '아리랑'은 1958년 첫 판매를 시작, 1976년과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총 24년간 판매됐다.

조성은씨는 "전시된 물품이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향 진도군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조성은 대표의 아리랑 담배 기증은 아리랑의 역사를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밝혔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이숍' 전복 판매량 466% 쾡충...비결은?

가수 영탁 전복 홍보대사 효과 특출

전남 완도군의 전복 홍보대사로 가수 영탁이 위촉되면서 그 효과를 특출히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가수 영탁을 전복 홍보대사로 위촉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완도군 농수특산물 중계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의 전복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6%가 늘어났으며, 건어물 판매량 역시 273%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0일에 발매된 가수 영탁의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의 인기와 영탁팬클럽 회원들의 입소문으로 '완도군이숍' 쇼핑몰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적으로 선물 수요 시기인 설 연휴가 끝난 2월부터 4월까지의 전복 소비가 저조하나 가수 영탁이 전복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전복 구입 문의 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완도=이민혁 기자

장흥군, 도로변 가로수 정비

장흥군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정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군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봄맞이 가로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경관 조성에 나섰다. 이번 봄맞이 정비는 가로수의 생육 환경개선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변 구간의 가로수 약 2천여 그루의 가지치기 작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가지치기 작업은 교통시설물을 가리거나 도로 주행을 방해하는 가로수, 배전선로·통신망선로 등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와 생활의 불편 발생이 우려되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봄맞이 정비가 완료되면 아름다운 도로 환경 조성은 물론,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늘려 해남형 ESG 실천

올해 1,201대 지원...미세먼지 저감 적극 나서

해남군은 해남형 ESG 환경분야 중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1,201대, 19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지원물량 1,014대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 대상 차량은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

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로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폐차희망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남군에 연속해 등록되어야 하며, 차량의 최종 소유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 주

소가 해남군에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차량마다 다르며, 3.5t 이하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의 차량은 최대 3,000만원, 도로형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차량 주 사용자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 시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및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또는 수급자 차량의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